



**[금융]**  
박지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IMF때도 공적자금 안받아  
금고에 준비금 1.7조 든든”  
05

**[라이프]**  
풀무원 ‘프리미엄 생면’  
美 아시아누들 시장  
정조준  
L1



# 새벽 여는 심정으로 빅데이터·AI에 도전… 국내 핀테크로

&lt;국가대표&gt;



새벽을 여는 사람들 //

딥서치  
김재윤 대표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기업은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기업일까. 일반인에겐 그 이름조차 생소하다. 7년 전에도 그랬다. 국내에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았던 불모지 시절이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 뛰어 들었다. 이젠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 분야에서 아시아 대표 격이 된 딥서치(DeepSearch)의 김재윤 대표.

그의 이력은 화려하다. 연세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며 컴퓨터 과학을 공부했다. 이후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전신인 NHN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다 공인회계사(CPA) 자격증을 취득해 국내 대표 회계법인으로 손꼽히는 안진회계법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회계업에 몸담으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심사역(VC) 일을 시작했다. 파트너 스인베스트먼트에서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모바일, 정보통신기술(ICT) 등 이른바 4차산업 혁명으로 불리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맡았다.

모든 VC가 갖고 있는 고충은 그에게도 똑같이 있었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았다.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데이터를 수집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야하는데 이런 단순 작업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효율성은 떨어졌다.

그러다 생각했다. 간편하게 찾아낼 방법이 없을까.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해 방대한 기업들의 데이터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푸념했다. 딥서치의 창업 아이템은 이 작은 푸념에서 태어났다. 기술을 활용해 사람들이 단순 반복되는 업무가 아닌 고차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VC 경험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창업  
자체 개발 엔진, 증권사·연구소 등에 제공  
인프라 구축 어려운 중소형 회사에 도움도

싱가포르 현지법인 세워 핀테크 시장 공략  
글로벌 업체와 경쟁하며 성장동력 만들 것



김재윤 딥서치 대표.

지원하고 싶었다.

창업 당시 김 대표는 충분히 승부수를 띄울만하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집단은 많지만 필요한 상황에 맞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곳은 없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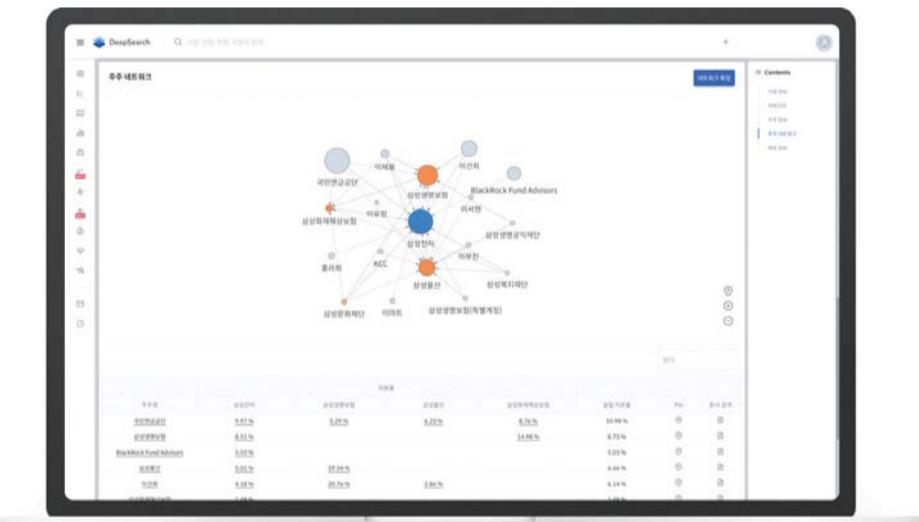
딥서치는 말 그대로 ‘깊게 찾는다’는 뜻이다. 다양한 조건으로 방대하고 파편화된 데이터를 한곳에서 검색 할 수 있다. 손쉽게 기업의 기본 정보부터 시장 분석·관련뉴스·업계 이슈·기업 가치·공시·증권사 리포트 등 원하는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해 주는 서비스다. 김 대표는 딥서치를 이렇게 소개했다.

그는 프로그램 개발자와 회계사, VC 등 다양한 업종에서 쓰아왔던 경험들이 있었기에 누구보다 투자자와 업계 종사자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었다고 한다.

메인으로 내세웠던 금융과 기업 빅데이터 분석에서 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되겠다는 것이 그의 다짐이었다. 가장 공을 들였던 것은 차별화였다. 금융기관뿐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원하는 모두에게 사용 가능한 서비스가 돼야 했다. 기업과 정부기관, 운용사 같은 큰 단체부터 직장인과 일반인까지 아우르는 것. 김 대표의 목표였다. 김 대표는 “8년을 달려온 결과 해당 영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유일한 회사로 자리했다”고 말했다.

현재는 자체 개발한 엔진을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형태로 다수의 메이저 증권사뿐 아니라 금융 데이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연구소와 기관,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김 대표는 “많은 국내 금융사가 딥서치가 제공하는 기술을 활용해 자체 서비스를 개발한 후에 투자자들에게 금융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딥서치가 AI를 기반으로 개발한 검색엔진은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등 대형 증권사도 사용하고 있다. 삼성과의 특별한 인연을 맺어오기도 했다. 2017년 삼성전자·크리에이티브 스퀘



김재윤 대표가 소개한 딥서치 로보애널리스트.

/딥서치

어’ 프로그램에 선정되면서다. 당시 갤럭시에 탑재된 음성서비스 ‘빅스비’의 금융 질의응답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했다.

김 대표는 “그때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삼성자산운용과 2차전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도 공동으로 상장했다”며 “국내 최초로 벤처캐피탈 빅데이터분석을 통한 종목 추출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포트폴리오 구성방법을 개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디지털 중심으로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형 회사에도 도움을 건넸다.

김 대표는 “많은 기업이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많은 양의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데 고정 비용으로 인해 알맞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어렵다면 딥서치의 API 서비스를 통해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많은 기업들이 딥서치가 제공하는 API서비스를 자사의 서비스에 적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부터는 싱가포르에 현지법인을 세워 현지 핀테크 사업에 뛰어들었다. 아시아 유일 투자처로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김 대표는 그 물음에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영어를 사용하고 금융이 발달한 지역”이라며 “글로벌 업체와 경쟁하기 좋은 환경이

며 이런 점이 우리에게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딥서치는 최근 실리콘밸리 유명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인 플러스&플레이(Plus&Play) APAC 2기에 선정되기도 했다. 싱가포르 금융기관과 다양한 형태의 협업을 진행하며 계획대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김 대표는 국내 핀테크 시장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딥서치가 개척해 나갈 시장 역시 무궁무진하다는 얘기다.

그는 “AI 발전으로 금융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에 적용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졌다”며 “AI 시대에는 영양가 있는 데이터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으며 어떻게 잘 다루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핀테크는 앞으로 금융영역을 넘어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의 꿈은 이제 막 첫걸음을 냈다. 싱가포르를 아시아 시장의 교두보로 삼아 세계 무대로 진출해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는 것. 창업 당시부터 꿈꿔왔던 오랜 목표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핀테크 기술 수준은 사업 분야만 잘 선택하면 글로벌 업체와 경쟁해도 충분한 수준”이라며 “세계 진출을 통해 한국 핀테크 기업으로서 당당하게 경쟁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